

미세먼지 노출 “전남 학교 미인증 공기청정기 1만여대 미교체”

전교조전남지부 “학생 건강권 위협 심각” “주의보 발효...교실 마스크 의무화 필요”

봄철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전남지역 일선 학교의 공기청정기가 작동을 하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는 21일 “유·초·중·고 공기청정기 교체작업이 늦어져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단체는 “지난해 8월 일선학교 공기청정기 설치사업 계약기간이 종료돼 같은해 9월 1일부터 공기청정기 교체사업이 진행됐지만 사업추진이 늦어져 2학기 시작 이후에도 학생들이 미세먼지에 노출돼 있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11월 인천 부평에서 안전관리원 미인증 불법제조 제품을 학교에 납품한 제조업체가 조사를 받았고 전남지역은 임

차한 2만306대 중 1만2656대가 사용 중지됐다”며 “도교육청은 발빠르게 회수·교체 작업을 진행해야 함에도 1차 행정처분 처리기한인 지난 1월 20일까지 완료하지 못해 2개월 연장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처리 미숙으로 인해 현재 전남지역 대부분의 학교가 새학기가 시작됐음에도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봄철 초미세먼지까지 기승을 부려 건강의 위협을 받고 있

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은 불법으로 생산돼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공기청정기가 일선 학교에 설치된 원인을 찾아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학생들이 초미세먼지의 위협에 노출돼 있는 만큼 주의보 등이 발효될 경우 교실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일선학교에 전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이슬기자



기후솔루션 등 환경단체, 팜유 규제 퍼포먼스
기후솔루션 등 환경단체 회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세계 산림의 날을 맞아 팜유 사용 규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건조한 봄 날씨’ 광양·영광서 잇단 산불

임야 0.4ha 소실

건조한 봄 날씨 속 전남에서 산불이 잇따라 임야 0.4ha가 됐다.

21일 전남도 산불방지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47분께 광양시 진상면 황죽리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 당국에 의해 1시간 3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임야 0.3ha가 탄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산림 당국은 지자체 임차 진화 헬기 3대, 산불진화차·소방차 6대와 산불전문진화대원·소방관 등 82명을 투입해 큰 불길을 잡았다.

산림 당국은 잔불 정리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 27분께 영광군 염산면 야월리 한 야산에서도 불이 나 산림 당국에 의해 18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임야 0.1ha가 됐다. 진화 작업에는 지자체 임차 헬기 2대, 산불진화장비 14대, 산불전문진화대원·소방관 등 69명이 동원됐다.

산림 당국은 주민이 밭에서 농업부산물물 태우다 불길에 주변 야산까지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또 불법 소각 행위를 한 주민을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할 방침이다.

산림 당국 관계자는 “산불이 재발하지 않도록 잔불을 제대로 끄고 뒷불 감시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건조한 날씨 속 지역에 따라 바람이 강하게 불어 산불 위험이 높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는 농업 부산물 또는 쓰레기를 소각해서는 안 된다. 불법 소각 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전남 6개 시·군(순천·광양·담양·곡성·구례·화순)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기자

지난 2월 광주 수돗물 단수사태 피해 보상 186건 접수

영업보상 73건·필터교체 36건 등 피해 보상 신고

지난 2월 광주 수돗물 단수사태와 관련, 총 186건의 피해 보상 신고가 접수됐다.

21일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17일까지 덕남정수장 유출밸브 사고로 인한 수돗물 피해보상 신청을 받았다.

신청 내용은 생수구입비 20건, 필터교체비 36건, 저수조 청소 32건, 영업보상 73건, 기타 25건 등 모두 186건(156명)이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달 발생한 단수사태로 당초 알려진 것보다 1만여 세대가 많은 3만

8000여 세대가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단수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3만8000여 세대의 경우, 별도 신청 절차없이 2월 수도요금 중 이를 분을 일괄 감면한다는 계획이다. 2월 수도요금은 4월 고지서에 반영한다.

상수도사업본부는 광주시 수돗물 수질사고 관련 보상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구성된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4월까지 보상 유무·보상금액 등을 결정,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지난 달 12일 발생한 덕남정수장 송수관로 밸브 고장으로 3만8000여 세대에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고 수돗물 5만7000여 t이 유실됐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상수도사업본부에 감사장을 설치하고 수돗물 사고 원인과 노후관 등 시설물 유지·관리 적정 여부, 재난안전 문자 전파 적정 여부, 긴급복구 적정 여부, 노후 시설물 개량 계획, 사고 행동매뉴얼 적정성 등을 감사하고 있다.

오유나기자

영업종료 전 주인 자리 비운 식당들 노린 도둑

다른 지역에서도 절도 행각 벌인 정황 확인

광주 북부경찰서는 영업 종료를 앞둔 식당에서 업주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6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4일 오후 9시 30분께 광주 북구 우산동의 음식점에 들어가 현금 25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식당 영업을 마칠 시간대 업주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생활비가 떨어질

때마다 절도 행각을 일삼아 비슷한 전과도 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A씨는 누방 기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를 수배했고, 범행 10개월여 만인 전남 전북 전주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다른 지역에서도 절도 행각을 벌인 정황을 확인,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이슬비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